



제2회강진하맥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행사장에서 강진원 강진군수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3일간 7만명 즐겼다 강진 하맥축제 대박

서양에 조선 알린 네덜란드 하멜 브랜드 마케팅에 올해 2회째 입장수익 전년비 57% 증가 읍내 상권·숙박업소 등 활기

지난 31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 제2회 강진 하맥축제에 전국에서 7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 관람객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 세종, 강원, 제주 등지에서 6만7000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진 하맥축제는 조선을 서양에 알린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을 브랜드화한 '하멜촌 맥주'를 마케팅해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여 올해 2회째를 맞아 전국 규모로 만들었다. 관람객은 지난해 4만3000여명과 비교해 55% 증가했으며 입장수익(1인당 1만원)도 전년 5900여만원보다 57% 증가한 9300여만원을

기록했다. 관심을 끌었던 맥주 소비는 하멜촌맥주 1만병이 모두 소진됐으며 카스제로와 스텔라, 한맥 등도 모두 소진됐다. 치킨류를 포함한 안주 역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높아 재료가 바닷나기도 했다. 지역 상인들은 물론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1억2000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등 강진상권활성화 특별 이벤트를 통해 1억원 이상이 지역에 소비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축제장뿐만 아니라 강진읍내 상권, 일반 숙박업소도 활기를 띠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하맥축제가 이제는 한여름 대한민국 최고의 치맥축제로 자리잡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열리는 제9회 강진만 추추는 갈대축제 때도 배달앱 먹깨비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지역상권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세계로 가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한국문화교류사업단과 업무협약 해외 공연·먹거리 '글로벌 존' 운영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 등

장성군이 '황룡강 가을꽃축제' 세계화에 나선다. 장성군은 전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국제축제로 발돋움하는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문화교류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은 올해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에서 중국 공연예술단체 24개 팀 500여명이 함께하는 광장무 공연을 펼치고, 각종 축제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장성군은 한국문화교류사업단 협약 외에도 해



장성군이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문화교류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성군 제공>

외 공연과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존' 등을 운영해 가을꽃 축제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외국 무대에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 등 축제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유리·고철 배출 불연성마대 도입

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이달부터 시범 판매

나주시가 폐기물 처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불연성마대를 사용하기로 하고 판매를 개시한다. 나주시는 깨진 유리나 고철 등의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연성마대(20 l)를 새롭게 9월부터 도입하고 시범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불연성마대란 p.p(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마대

로, 깨진 유리, 화분, 도자기, 사기그릇, 고무제질, 조개껍데기, 모래, 벽돌, 가위, 칼, 소량의 고철류 등을 담을 수 있다. 그동안 깨진 유리나 고철 등의 폐기물이 일반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봉투가 찢어지거나 폐기물 수거작업자의 부상을 초래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시는 빛가람동에서부터 불연성 마대를 시범 판매를 시작했다. 마대는 20 l 규격으로 무게는 10 kg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종량제물품 판매소(마트, 편의점)에서 한 장당 3000원에 판매한다. 불연성 마대의 배출방법은 대형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나주시는 시범판매에서 과정에서 개선점을 마련하고 2025년 1월부터 나주시 전 지역에서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로컬푸드 빛가람점, 추석 선물 대축제

선물세트 70여종 상품 판매...SNS 이벤트 10명 농산물 증정

나주시가 운영하는 '나주 로컬푸드 빛가람점'이 추석맞이 선물 세트 대축제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오는 16일까지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서 70여종의 다양한 추석 맞이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직매장에서 나주배·사인머스켓·단감 등 제철 과일과 한돈·한우 축산물 선물세트를 비롯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지역 제류상품으로 나주에서 가공한 김바구 등 수산물 세트를 준비해 소비자 선택 폭을 더욱 넓혔다. 행사 기간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장바구니 또는 친환경 세제를 증정하고,

SNS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제철 로컬푸드 농산물을 증정한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주배는 직접 맛보고 고를 수 있도록 생산자별 해배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택배 서비스 예약'은 오는 11일까지 접수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나주로컬푸드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위해 다양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면서 "지역 먹거리로 구성된 정성 가득한 선물로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함평군, 명절 앞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전통시장·터미널·요양병원 3곳 피난 통로 확보 등



함평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함평천지전통시장, 함평공영터미널, 함평군공립요양병원 등 3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점검은 함평군을 비롯해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 시설관리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누수 등 결함 여부 ▲소방·전기·가스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태 ▲비상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 피난 통로의 상시 확보 여부 ▲시설 안전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추석 이전까지 보수·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뒤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명절 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보건소, 갱년기 여성 건강교실

5일~10월 17일 매주 목요일 한의약적 요령·운동·명상 요법 등

강진군보건소는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년여성 대상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은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6주간 보건소에서 운영하며 갱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한의약적 요령과 운동요법, 명상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체성분측정(BMI), 쿠퍼판(갱년기 진단) 검사,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검사로 사업 전·후 변화 모니터링과 개별 맞춤형 건강

상담도 이루어진다. 중년여성 한의약 건강 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중년여성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061-430-5263) 신청하면 된다. 한준호 강진군보건소장은 "중년여성은 다른 가족을 챙기느라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소홀해 지기 쉽다"며 "중년여성 한의약 건강교실 프로그램 참여로 갱년기를 예방 관리하는 요령을 습득하여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 담빛음악당에서 '가을 맛이'

6~7일 파크콘서트...최진배 빅밴드·그룹 동물원 등 공연

담양군문화재단이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담빛음악당에서 '담빛 파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담빛 파크콘서트'는 담양군과 담양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공간 특화 사업으로, 휴식과 음악을 접목한 복합문화프로그램이다. 대중음악 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최진배 재즈 빅밴드의 공연으로 문을 연다. 베이스, 색소폰, 트럼펫 등 재즈 기반 16인조 밴드의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 7일에는 90년대 밴드 음악의 대표 아이콘인 그룹 '동물원'이 클래식 버전으로 무대를 장식하며, '해화동', '흐린 가을에 편지를 써' 등 다수의 명곡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전



왼쪽부터 그룹 '동물원'의 배영길, 박기영, 유준열.

남도립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험 부스,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는 힐링 요가, 캠핑 물품 대여, 가족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 촬영 이벤트 등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담빛 파크콘서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 및 물품 대여는 사전 예약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사전 예약은 재단 누리집공고 또는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